

송해성

한양대학교 [서울캠퍼스 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](#) 85학번 동문이자 영화감독이다.

1999년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었던 영화 「카라」가 관객과 평단 모두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송 동문은 실패를 딛고 2001년 영화 「파이란」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다.

이후 2004년 「역도산」과 오는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「우리들의 행복한 시간」을 통해 송 동문은 섬세한 멜로적 감성으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독으로 한국영화계에 자리매김했다.

2006년 뉴스H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"기술이 아닌 삶의 성숙함이 영화감독의 시작"이라며 "많이 느끼고, 많이 보는 것이 최고"라고 조언했다.

□

목차

- [1 경력](#)
- [2 감독](#)
- [3 수상 내역](#)
- [4 교내 매체](#)

경력

- 2017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

감독

- 1991년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(스크립터)
- 1991년 핸드백 속의 이야기 (조연출)
- 1994년 게임의 법칙 (조감독)
- 1996년 본 투 킬 (조연출, 각본)
- 1999년 카라 (감독)
- 2001년 파이란 (각본, 감독)
- 2004년 역도산 (각본, 감독)
- 2006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(감독)
- 2008년 멜로스 (감독)
- 2010년 무적자 (감독)
- 2013년 고령화 가족 (각본, 감독)
- 2017년 어느날 (원안)

수상 내역

- 2001년 제15회 영국 리즈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
- 2001년 제22회 청룡영화상 감독상
- 2002년 제4회 도빌아시아영화제 감독상
- 2002년 제39회 대중상영화제 감독상
- 2005년 제42회 대중상영화제 감독상
- 2006년 제16회 한국 카톨릭 매스컴상 대상

교내 매체

- <뉴스H> 2006.09.28 '인간'의 얘기로 말을 건네는 영화감독, 송해성